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9. 11(금) 총 3매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교통안전복지과	• 과장 윤영중, 사무관 김교준 • ☎ (044) 201-3872, 3868	
	경찰청	교통안전과	• 과장 한창훈, 경정 김주곤, 경감 우신호 • ☎ (02) 3150-2052, 2152, 0658	
	한국교통안전공단	교통안전정책실	• 실장 김상국, 처장 황성재, 책임연구원 김민우 • ☎ (054) 459-7200, 7230, 7237	
보도일시		2020년 9월 1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13(일) 09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-경찰청 맞손, 추석·가을에도 이륜차 안전 강화 - 7~8월 이륜차 집중단속 등으로 전년 대비 14.5% 사망자 감소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경찰청(청장 김창룡)은 상반기 증가세를 보이던 이륜차 사망자가 7~8월 기간 동안 전년 대비 14.5% 감소*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* '19년 7~8월 83명 → '20년 7~8월 71명(△12명, △14.5%)

-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도 각각 3.2%와 3.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이륜차 교통사고 현황(잠정 통계*)>

구분	계(1~8월)			1~6월			7~8월		
	발생	사망	부상	발생	사망	부상	발생	사망	부상
'20년	13,664	336	17,525	9,880	265	12,685	3,784	71	4,840
'19년	13,524	316	17,204	9,614	233	12,212	3,910	83	4,992
증감	+140 (1.0%)	+20 (6.3%)	+321 (1.9%)	+266 (2.8%)	+32 (13.7%)	+473 (3.9%)	-126 (△3.2%)	-12 (△14.5%)	-152 (△3.0%)

* 정확한 사고원인 등 분석 후 '21년 초 확정

-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-19 장기화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,
- 경찰청에서는 7~8월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였다.
 - 전년동기 대비 단속 건수가 42.2% 증가하였으며, 특히, 코로나-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캠코더 단속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, 캠코더 단속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.

<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단속 현황>

구분	계	현장단속	캠코더
'20. 7~8월	87,381	59,500	27,881
'19. 7~8월	61,470	57,331	4,139
증감	+25,911 (42.2% ↑)	+2,169 (3.8% ↑)	+23,742 (537.6% ↑)

-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·운영하고, 국민 제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 결과, 같은 기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5.9배 증가*하였다.

* '19년 7~8월 4,275건 → '20년 7~8월 29,517건, 590.5% ↑

- 아울러, 전국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사고다발지역(5,000여 곳)에 이륜차 교통안전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전 영상을 제작·송출하여 이륜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, 신규 배달운전자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.

- 이와 같이 7~8월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, 아직 올해 누적 사망자 수는 전년 보다 6.3% 증가한 만큼,
- 국토부와 경찰청은 추석기간을 포함하여 향후에도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·공익제보 및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,
 - 이륜차 배달앱의 안전기능 개선·확대 및 안전장구 지원 등 이륜차 안전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고, 중·장기적으로 이륜차 안전사고의

근원적인 감소대책 마련을 위해 이륜차 배달업계 실태조사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
- 국토부와 경찰청은 “이번 추석에는 코로나-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륜차 교통사고 없는 추석연휴가 될 수 있도록 배달운전자와 배달업계,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
 -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는 “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”을 당부하였으며,
 - 배달업계에 대해서는 “배달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”를 요청하였다.
 - 아울러,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“이륜차 배달 운전자들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성숙한 문화”를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교통안전복지과 김교준 사무관(☎ 044-201-386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